



ULSANN UNIVERSITY MUSEUM

UNIVERSITY OF ULSAN MUSEUM

# 10<sup>th</sup>

울산대학교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遺蹟과 遺物



2006



울산대학교  
UNIVERSITY OF ULSAN



?

?

?

울산은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처용' 등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울산은 '공업도시', '노동운동의 도시' 라는 이미지만이 강할 뿐입니다.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고,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서 10년 전인 1995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박물관은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유적을 발굴조사하였으며, 3회에 걸쳐서 "발굴유물 특별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3권의 학술조사보고서와 학술지 "울산연구"를 발간하는 등 울산지역의 역사와 문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임 박물관장님들을 비롯한 박물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양산 삼호리 유적을 시작으로 울산 중대 고분군, 경주 봉길 고분군, 울산 달천 유적, 울산 조일리 고분군, 울산 연암동 유적, 울산 화정동 유적, 경주 월산리 유적, 울산 서부동 유적, 울산 반구대 암각화, 울산 범어 유적, 울산 굴화·백천·구수리 유적, 울산 천소 유적, 부산 기장 가동·방곡리 유적 등을 발굴조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4,000여 점의 유물을 수습·정리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작지만 아담한 전시실을 마련하여 정리된 유물의 일부를 상시 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박물관이 조사하고 발굴하여 수집한 유물 가운데 200여점의 중요 유물을 선정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圖錄에서는 발굴된 지역별로 나누어서 유물을 정리하였으므로, 울산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의 유적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의미있는 유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도되고 있는 '울산학'의 정립에도 큰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박물관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06년 2월

울산대학교 박물관 김두현





###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2005년까지 울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한 유적과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정리한 도록이다.
2. 1부에서 4부까지는 소장유물자료이며, 5부는 발굴조사한 유적자료를 실었다.
3. 1부에서 4부까지는 시기별로 유물을 편집하였으며, 5부는 발굴순서별로 정리하였다.
4. 유물명칭은 우리말을 기본으로 기재하고 한자명칭을 병기하였다.
5. 규격은 토기의 경우에는 높이를, 철기나 석기의 경우에는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cm단위로 명시하였다.
6. 유물캡션에서는 세부적인 출토지는 생략하고 유적명만을 기재하였다.

# 遺蹟과 遺物

## CONTENTS

06



###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대략 기원전 10세기 경 북방민족들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20



###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한반도 북부지역에 철기가 전파·확산되면서 기존의 청동기가 이기(利器)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의기(儀器)화된다.

36



### 삼국시대

삼국은 고유의 문화에 외래문화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가운데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울산지역은 신라문화의 중심 지역이다.

82



### 한국근대

조선자기(朝鮮磁器)는 크게 분청사기(粉靑砂器) 종류와 백자(白磁) 종류로 나눌 수 있다.

96



### 발굴유적

우리나라 고대사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고고학연구에 중요한 지표 유적이 될 것이다.



*University Of Ulsan  
Museum*

## 청동기시대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1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연암동유적 / H 42.0



2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구수리유적 / H 23.5



3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구수리유적 / H 33.0

?  
1  
?  
?  
?  
?  
?  
?

?  
1  
?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4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구수리유적 / H13,6





5 민무늬토기 無文土器  
연암동유적 / H14.2

?  
1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  
1  
?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6 돌도끼 石斧  
구수리유적, 화정동유적, 구수리유적 / H9.3(좌)





7 돌도끼 石斧  
화정동유적 / H9,9(좌)



8 돌도끼 石斧  
방곡리유적, 서부동유적, 방곡리유적 / H7,2(좌)

?  
1  
?

University Of Ulsan Museum

?  
1  
?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9 돌도끼 石斧  
방곡리유적, 서부동유적, 서부동유적, 가동유적 / H11,5(좌하)

# 반달돌칼 제작과정



**10 반달돌칼 半月形石刀**  
 천소유적, 연암동유적, 방곡리유적, 서하리채집 / H 16.8(상)

- ?
- 1
- ?
- ?
- ?
- ?
- ?

University Of Ulsan Museum





11 반달돌칼, 가락바퀴 半月形石刀, 紡錘車

서하리채집, 굴화유적, 구수리유적, 연암동유적, 방곡리유적, 천소유적 / H 11.2(좌상), 6.0(좌하)



12 갈돌과 각종 석기류 지석과 각종 석기류  
화정동유적 외 / H.15.0(좌상)

### 돌화살촉 제작과정





15 간돌칼(磨製石劍)과 돌화살촉(石鏃)  
조일리유적 / H.37.0(좌)



*University Of Ulsan  
Museum*

##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 4~3????? ?? ?( ?)??? ????? ??? ?????? ??? ??ㄷ?????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2

2  
2  
2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16 삼각형점토대토기 三角形粘土帶土器  
방곡리유적 / H 29,3



17 굽다리접시토기 豆形土器  
방곡리유적 / H 18.8







University of Ulsan Museum



항아리 短頸壺 / H 21.9



주머니호 / H 8.1



주머니호 / H 7.8

18 방곡리유적 출토유물





주머니호 / H14.0



주머니호 / H12.6



접시 碗 / H4.2



University of Ulsan Museum



19 조합우각형파수부호 組合牛角形把手附壺  
대안리유적 / H 23.8



20 두귀달린 토기 兩耳附壺  
대안리유적 / H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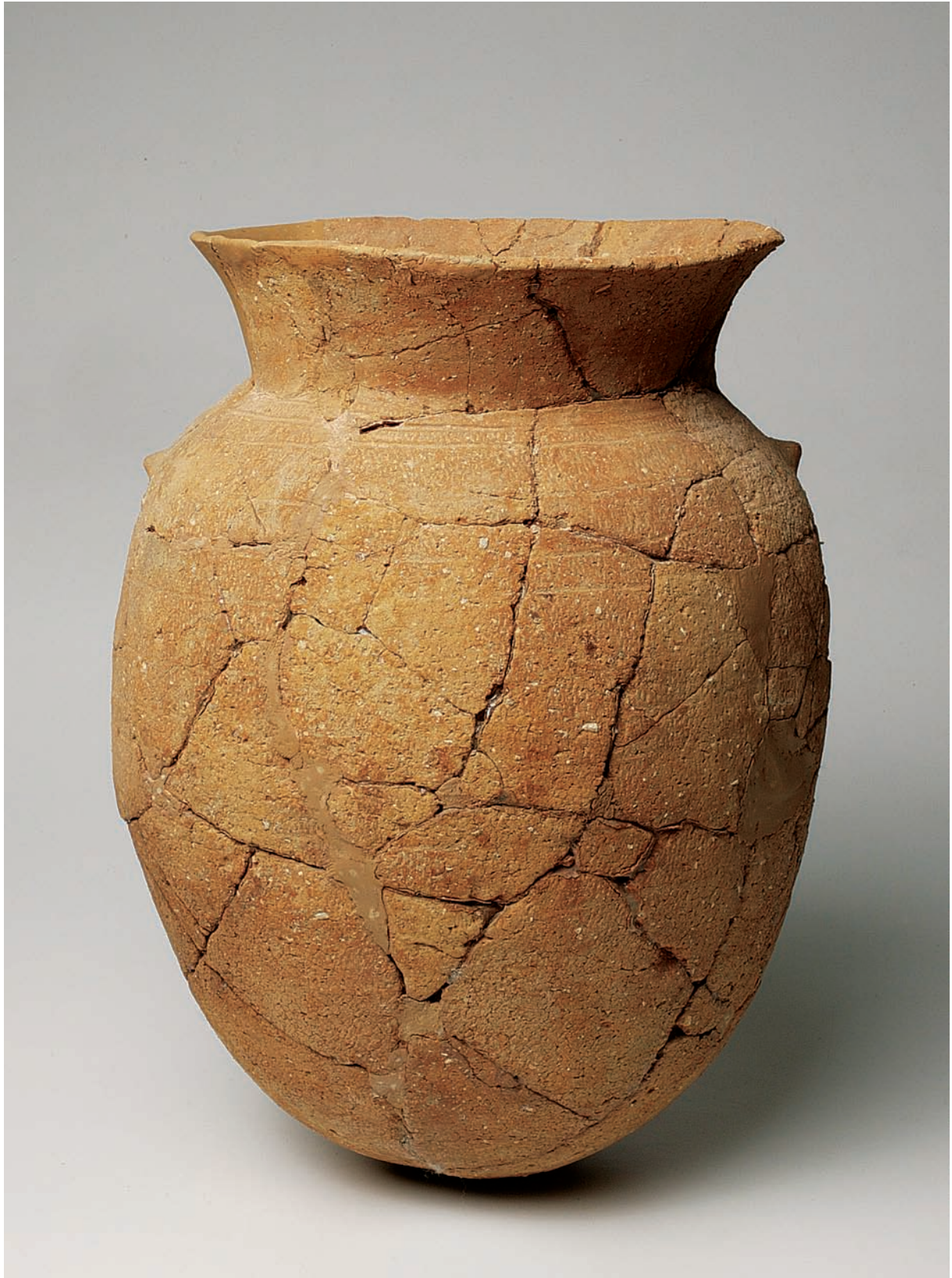
University of Ulsan Museum



University of Ulsan Museum



21옹 甕  
대안리유적 / H 32.8



22 항아리 短頸壺  
대안리유적 / H 43.0



2  
2  
2



국립부산박물관



23 주머니호  
대안리유적 / H17.6



24 굽다리주머니호 臺附주머니호  
대안리유적 / H19.3



2  
2  
2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25 굽다리곧선입항아리 甕附直口壺  
하대채집 / H.28.5



2  
2  
2

2  
2  
2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대안리유적 / H 46.6

26 철검 鐵劍



방곡리유적 / H 43.1



대안리유적 / H 33.0



대안리유적 / H 37.7





27 화살촉 鐵鏃  
대안리유적 / H10.9(좌상)



28 창 鐵鉞  
대안리유적 / H31.0(좌)

3  
2  
3  
2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2  
2  
2

2  
2  
2  
2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29 도끼 鐵斧  
 방곡리유적 / H3L8(좌)



30 도끼 鐵斧  
대안리유적 / H 15.8(좌상)

3  
2  
3  
2  
2  
2  
2  
2  
2  
2

University of Ulsan Museum



*University Of Ulsan  
Museum*

##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의 삼국이 정립되는 4세기부터 삼국통일(668년) 이전의 시기를 말한다. 삼국은 각각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외래문화를 다양하게 수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였다. 그 가운데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 울산지역은 신라문화의 중심지역이다.

신라문화의 특색은 일반민들과 구분되는 탁월한 입지에 구축된 높은 봉분을 가진 무덤(高塚古墳)들과 거기에서 출토된 화려한 금속공예품과 철기, 수많은 토기 등의 부장품으로 대표된다. 신라의 무덤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돌무지덧널무덤(積石木槨墓), 그 주변지역에서는 돌덧널무덤(竪穴式石槨墓)이 주된 묘제이지만, 덧널무덤(木槨墓), 독무덤(甕棺墓), 돌방무덤(石室墓) 등도 만들어졌다.

신라문화권에 속한 울산지역에서도 봉분을 갖춘 웅장한 무덤이 하대나 천전리 등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이들 무덤을 조사해 본다면 경주지역과 유사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역의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중산리유적, 조일리유적, 울동고분군 등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31 원통형그릇받침 筒形器臺  
농동유적 / H 49.0



32 원통형그릇받침 筒形器臺  
능동유적 / H 45.0





33 원통형그릇받침 筒形器臺  
농동유적 / H 47.5



34 원통형그릇받침 筒形器臺  
중대유적 / H 52.0



35 사발형그릇받침 鉢形器臺  
조일리유적 / H 35.0



36 원통형그릇받침 筒形器臺  
조일리유적 / H 36.0



37 사발형그릇받침 鉢形器臺  
능동유적 / H 35.0



38 사발형그릇받침, 긴목항아리 鉢形器臺, 長頸壺  
농동유적 / H 24.2(기대), 20.8(장경호)



39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중대유적 / H 36.4



40 굽다리접시 高杯  
능동유적 / H 17.0



41 굽다리접시 高杯  
능동유적 / H 14.0



42 굽다리접시 高杯  
능동유적 / H 14.3



44 굽다리접시 高杯  
농동유적 / H14.5



43 굽다리접시 高杯  
농동유적 / H12.4



45 굽다리접시 高杯  
농동유적 / H14.7





46 굽다리접시 高杯  
봉길유적 / H 12.9



47 굽다리접시 高杯  
능동유적 / H 11.0



48 굽다리접시 高杯  
조일라유적 / H 16.4



49 굽다리접시 高杯  
봉길유적 / H 12.3



50 굽다리접시 高杯  
봉길유적 / H 13.3



51 굽다리접시 高杯  
봉길유적 / H 11.0



52 손잡이달린접시 把手臺附碗  
농동유적 / H 9.3



53 손잡이달린접시 把手臺附碗  
대안리유적 / H 14.5



54 컵모양토기 杯形土器  
조일리유적 / H 8.3



55 손잡이달린접시 把手臺附碗  
조일리유적 / H 10.5



56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농동유적 / H 34.0



57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봉길유적 / H 37.7



58 굽다리긴목항아리 附加口緣長頸壺  
가동유적 / H 28.4



59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가동유적 / H 15.7



60 굽다리긴목항아리 臺附長頸壺  
가동유적 / H 23.5





61 긴목항아리 長頸壺  
농동유적 / H 30.0



62 긴목항아리 長頸壺  
봉길유적 / H 38.0



63 항아리 短頸壺  
봉길유적 / H 25.0



64 긴목항아리 長頸壺  
농동유적 / H 17.9



65 긴목항아리 長頸壺  
농동유적 / H 20.8



66 항아리 短頸壺  
조일리유적 / H 30.7



67 긴목항아리 長頸壺  
능동유적 / H 21.1



68 항아리 短頸壺  
조일리유적 / H 25.6



69 항아리 壺  
조일리유적 / H 13.6



70 항아리 短頸壺  
봉길유적 / H 13.5



71 입큰항아리, 그릇받침 廣口小壺, 小型器臺  
 능동유적 / H 7.0(광), 7.5(소)



72 입큰항아리, 그릇받침 廣口小壺, 小型器臺  
 능동유적 / H 6.0(광), 7.5(소)





73 연질옹 軟質甕  
조일리유적 / H 8.5



74 연질호 軟質壺  
능동유적 / H 19.8



75 뚜껑과손잡이달린옹 有蓋把手附甕  
능동유적 / H 9.0



76 연질옹 軟質甕  
봉길유적 / H 21.7



77 특이한모양토기 異形土器  
봉길유적 / H 39.7



78 두귀달린토기 兩耳附壺  
조일리유적 / H 17.5



79 장군형토기 缶形土器  
봉길유적 / H 26.8



80 시루, 향아리 甑, 壺  
가동유적 / H 29.7(시루), 18.8(호)



81 긴목항아리 長頸壺  
가동유적 / H 24.3



82 시루 甗  
가동유적 / H 29.7



83 접시 碗  
가동유적 / H 5.3



84 접시 碗  
가동유적 / H 10.5



85 굽다리항아리 臺附壺  
가동유적 / H 13.8



86 연질옹 軟質甕  
가동유적 / H 12.8



87 갈돌들 砥石類  
가동유적



88 흙구슬, 돌구슬 土球, 石製品  
가동유적



89 원반형태제품 圓盤形土製品  
가동유적



90 구멍뚫린돌 有孔石  
가동유적





91 용도 미상 목기류  
가동유적



92 바가지 외 목기류  
가동유적



93 나무신발  
가동유적



94 신발 윗부분  
가동유적



95 신발 아랫부분  
가동유적



96 기둥과 받침목  
가동유적



97 빨래방망이  
가동유적



98 목걸이 頸飾  
농동유적



99 유리구슬  
농동유적 외



100 귀걸이 耳飾  
봉길유적 외



101 삼엽문고리칼  
三葉文環頭大刀  
조일리유적 / H 59.0



102 삼엽문고리칼  
三葉文環頭大刀  
조일리유적 / H 71.3



103 등근고리칼  
環頭大刀  
조일리유적 / H 87.1



104 큰칼  
大刀  
조일리유적 / H 45.0



105 창, 화살촉  
鐵鉞, 鐵鏃  
능동유적의 / H 27.0(좌)



106 갑옷미늘  
小札  
능동유적



107 말치레걸이 馬具  
농동유적 외 / H 20.0(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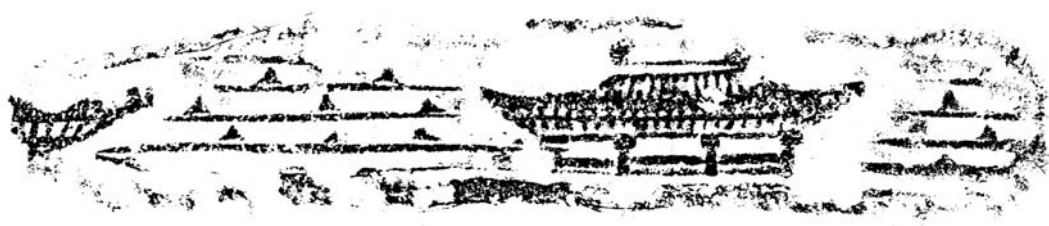


108 각종철기류  
능동유적 의 / H 21.0(좌상)





109 흙 벽돌 埴  
중산리 채집 / H24.3



110 흙 벽돌 塼  
중산리 채집 / H 29.5



*University Of Ulsan  
Museum*

## 한국의 도자기와 근대 부장품

고려자기(高麗磁器)는 통일신라 말 중국의 도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불교(佛敎)와 귀족사회(貴族社會)로 대표되는 고려 왕조 전 기간에 걸쳐 색에서 기형·문양·번조(燔造)수법에 이르기까지 독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주된 수요계층이 왕실과 귀족이었던 탓에 장식 기법이 매우 귀족적인 특징을 보인다. 11세기 말부터 12세기 초까지는 철화문(鐵畵文)과 퇴화문(堆花文)이 발전하는 등 청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백자(白磁)·흑유(黑釉) 등 여러 가지 도자기가 발전하였다. 12세기를 거치면서 괘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13세기 초 몽고의 침입과 무신정권기를 거치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어 변화를 보인다. 즉 기형이 둔화되고 굽도 조금씩 커지며 밝은 유약의 비색(翡色)이 다소 어두워지면서 문양도 쇠퇴하여 14세기 중엽부터 조선시대에 새롭게 유행하게 되는 분청사기(粉靑砂器)의 모태가 된다.

조선자기(朝鮮磁器)는 크게 분청사기(粉靑砂器) 종류와 백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밖에 청자(靑磁)·흑유·철채(鐵彩)·철유자기(鐵釉磁器) 등이 있으나 분청사기와 백자에 비해 그 비중이 훨씬 적었다. 조선자기의 발전은 임진왜란 이전까지 성행한 분청사기와 조선조 전 기간 동안 성행한 백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울산지역에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기간동안에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화삼유적이거나 태기마을 등에서는 가마유적이 확인되었고, 범어유적, 달천유적 등에서는 무덤유적이 발굴되어 이 시기의 유물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111 묘지석 墓誌石  
서창민묘



國...  
 哀哉... 人性... 非... 無... 者... 不... 事... 業... 人... 欲... 大... 用...  
 不... 相... 勢... 乎... 料... 是... 也... 疏... 廟... 堂... 請... 啓... 以... 至... 命... 命... 於... 者...  
 起附以... 天年...

原植... 年... 十... 五... 月... 十... 日... 國... 家... 前... 昔... 以... 故... 授... 同... 生... 事... 業... 謹... 誌...



112 청자상감운학문대접 靑瓷象嵌雲鶴文大碗  
범어유적 / H8.3



113 청자상감국화문대접 靑瓷象嵌菊花文碗  
범어유적 / H 8.6





114 분청귀얄문접시 粉靑귀얄文碗  
방곡리유적 / H 4.0



115 백자접시 白磁碗  
방곡리유적 / H 5.1



116 백자대접 白磁碗  
방곡리유적 / H 8.3



117 분청귀얄문대접 粉靑귀얄文碗  
방곡리유적 / H 8.8



118 분청귀얄문대접 粉靑귀얄文碗  
방곡리유적 / H 8.8



119 명기 名器  
방곡리유적

120 명기 名器  
서창민묘



121 토기병 土器瓶  
범어유적 / H 12.8

122 정병 靜瓶  
범어유적 / H 19.5



123 청자병 靑瓷瓶  
방곡리유적 / H 16.0



124 녹갈유병 綠褐釉瓶  
방곡리유적 / H 19.0



125 동전류 銅錢類  
방곡리유적



126 장신구류 裝身具類  
방곡리유적 의



127 청동그릇 靑銅盒  
방곡리유적 / H 4.3



128 청동수저류 靑銅箸類  
방곡리유적 외 / H 33.3(좌)



129 갓근 笠纒  
방곡리유적



130 갓곤 笠纓  
방곡리유적





*University Of Ulsan  
Museum*

## 발굴 유적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1995년 12월 개관한 이후 10년간에 걸쳐서 울산을 비롯하여 부산, 김해, 경주지역의 다양한 시기에 해당하는 유적들을 발굴조사하였다. 울산지역에서는 연암동유적, 대안리유적, 조일리유적 등의 유적을 조사하였고, 부산지역의 가동유적과 방곡리유적, 김해지역의 능동고분군, 경주지역의 봉길유적과 월산리유적 등을 발굴하였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지역과 부산, 김해를 중심으로 한 가야지역의 유적을 모두 조사하여 양지역간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조사한 부산 가동유적에서는 삼국시대의 마을이 발굴되어 대단히 중요한 학술적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대학교 박물관은 10년이라는 기간동안 청동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고려·조선시대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들을 조사하여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자료들을 소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귀중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1. 중대유적

중대유적은 울산 웅촌면 대대리에 위치한 과수원 부지에서 조사된 삼국시대의 무덤유적이다. 모두 9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5세기 중엽이후의 것들로 돌을 쌓아서 만든 돌덧널무덤(石槨墓)이다. 출토된 유물은 굽다리접시(高杯)와 굽다리긴목항아리(臺附長頸壺) 등으로 신라지역의 토기 특징을 잘 보여준다.

중대유적은 하대, 상대마을과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며, 2세기 중엽경부터 6세기경까지의 무덤이 조성된 대규모 무덤유적의 일부이다. 하대유적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2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모두 81기의 원삼국시대 덧널무덤(木槨墓)을 확인하였다. 원삼국시대연구의 중심유적으로서 우리나라 고대사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중대유적은 생활근린시설 공사도중에 무덤이 노출되어 존재가 알려졌는데, 무덤의 대부분이 토목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중대유적 주변에서 채집되는 유물로 보아 대규모의 무덤유적임을 알 수 있는데, 규모가 큰 대형무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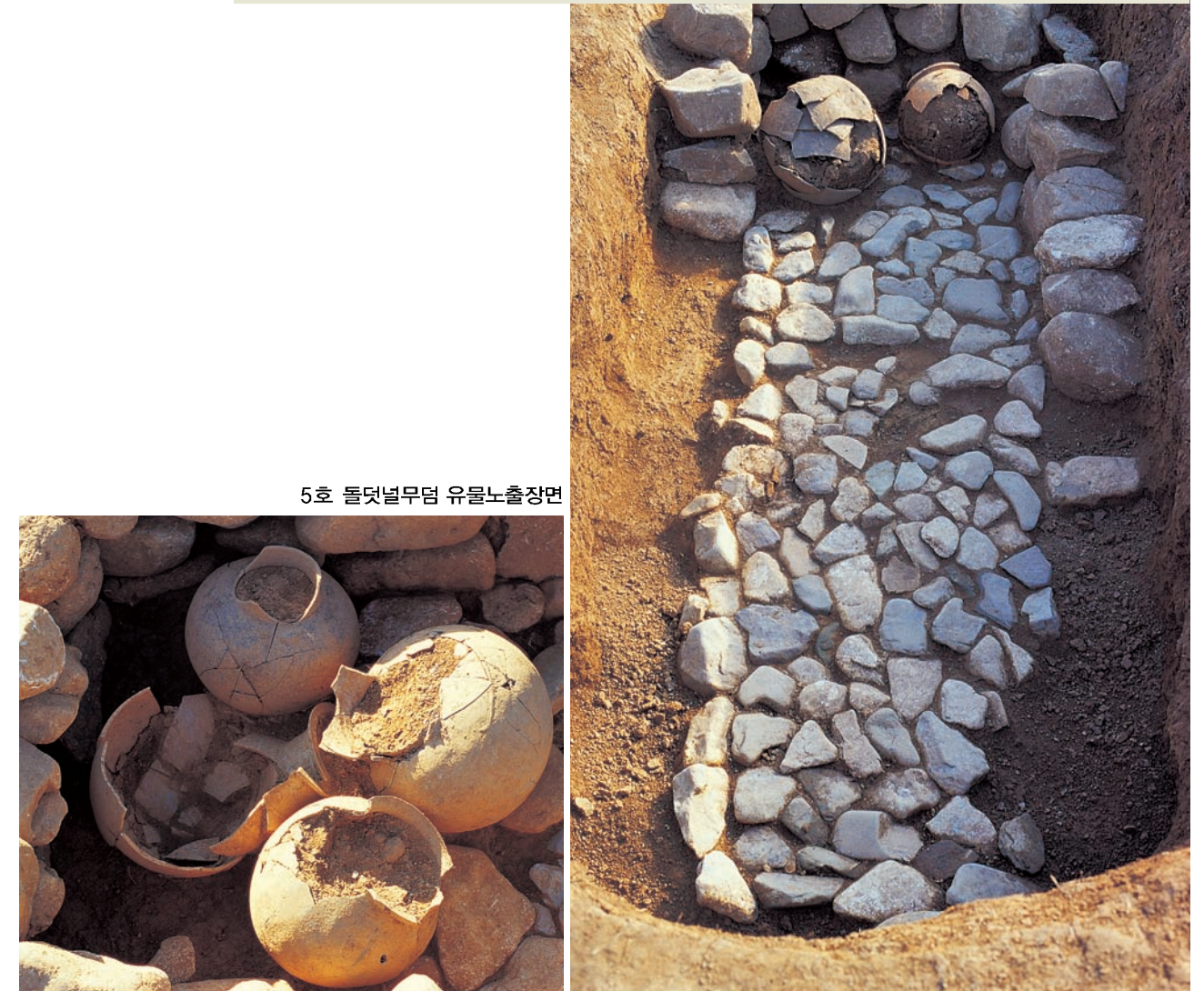
중대유적에서는 5세기대의 무덤이 조사되었지만 주변지역에는 2세기대 이후부터의 무덤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이들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고고학연구에 중요한 지표 유적이 될 것이다.



위 | 3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7호 돌덧널무덤 전경



중대유적 원경



5호 돌덧널무덤 유물노출장면

## 2. 능동유적

김해 능동유적은 장유 신도시 조성공사를 위한 구제발굴과정에서 발굴된 무덤유적이다.

1996년 조사를 시작하여 약 5개월여에 걸쳐 27기의 덧널무덤(木槨墓)과 42기의 돌덧널무덤(石槨墓), 그리고 삼국시대 토기가마터와 조선시대 기와가마터가 조사되었다.

발굴된 무덤들은 대개 5세기대의 것들로 가야지역의 무덤양식을 충실히 보여준다. 무덤들은 중복됨이 없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었으며, 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이 뒤섞여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돌덧널무덤이 조금 늦게 만들어진 것이다.

출토유물은 대개 가야계의 토기가 주를 이루지만 신라계의 굽다리접시(高杯)도 다수 확인되어 영남지역의 교류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토기를 생산했던 삼국시대의 소규모 토기가마터가 조사되었으며, 마을 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규모의 가마로, 일상적인 생활토기를 생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된 무덤의 규모나 출토유물의 질적인 면에서 삼국시대 지방촌락의 무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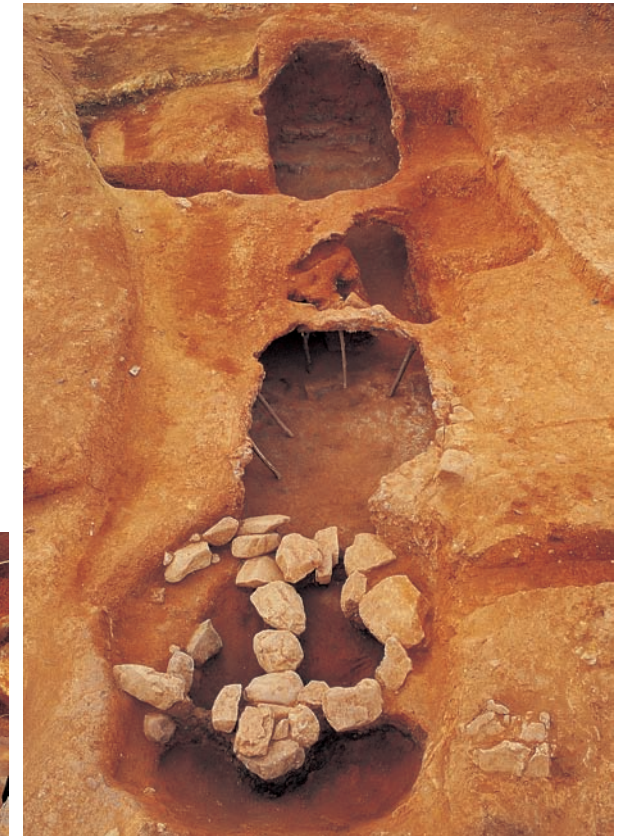


능동유적 원경



위 | 가-1호 돌방무덤 유물노출장면

아래 | 가-1호 돌방무덤 전경



1호 토기가마터 전경



위 | 나-14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나-26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나-4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나-27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나-10호 덧널무덤 전경





봉길유적 전경



봉길유적 전경

### 3. 봉길유적

경주 봉길유적은 1997년, 31번국도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으로 조사범 위는 도로 확장구간에 한정되었다. 따라서 유적의 극히 일부분만 조사가 되어 전체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조사된 유적은 대체로 6, 7세기대의 무덤들이다. 봉길유적은 주변에 감은사지, 문무왕수증릉이 위 치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문화의 중심권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사된 유구는 돌덧널무덤(石槨 墓)과 굴식돌방무덤(橫穴式石室墓) 등인데 출토유물은 신라양식의 토기들이 주류를 점한다.

굴식돌방무덤은 지상에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실되고 석실의 바닥부분만 남겨져 있어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형봉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돌덧널 무덤들은 유물부장칸을 등갈게 처리하고 주검이 있는 공간과 격벽을 이용하여 분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덤양식은 신라돌덧널무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출토유물로 보아 돌덧널무덤은 주로 6세기대, 굴식돌방무덤은 7세기대에 만들어진 무덤인 것으로 밝혀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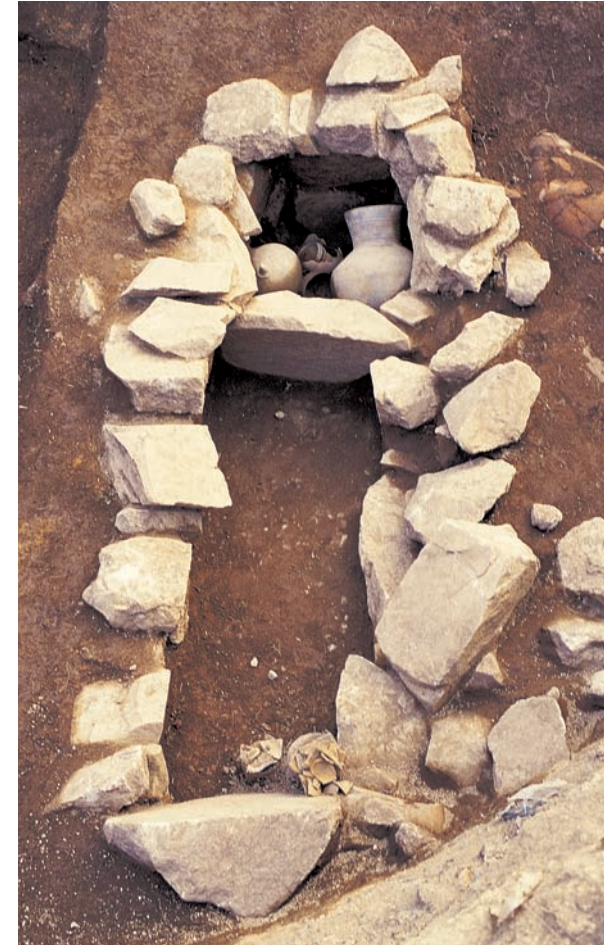
1호 돌방무덤 전경



위 | 30호 돌덧널무덤 유물노출장면  
아래 | 30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20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39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42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14호 돌덧널무덤 전경





35, 36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21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36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3호 돌무덤 전경



### 4. 조일리유적

조일리유적은 1998년에 조사된 삼국시대의 무덤유적이다. 김해 능동유적과 거의 같은 시기에 조성된 무덤들로 덧널무덤(木槨墓) 56기와 돌덧널무덤(石槨墓) 128기가 발굴되었다. 덧널무덤과 돌덧널무덤은 모두 2~4기의 무덤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가야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라지역 무덤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돌덧널무덤은 봉길유적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유물부장칸을 등글게 처리하고 있는 신라돌덧널무덤의 특징을 보여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신라계 토기지만 일부 가야계 토기들도 확인되어 주변지역과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 중에는 큰칼(大刀)의 경우 삼엽문환두대도(三葉文環頭大刀)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청동제의 삼엽문을 칼손잡이에 장식한 것으로, 이는 신분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조일리유적의 위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금제 귀걸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도 발굴되어 조일리유적이 상당한 지위를 가진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조일리유적은 경주와 김해를 잇는 교통로상에 위치하여 양지역이 우호적인 관계에서는 교역의 중심이며, 적대적 관계일 때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으로, 이러한 점에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음이 분명하다.



조일리유적 전경



위 | 출토유물 노출장면

아래 | 72호 청동기시대 돌무덤 전경







위 | 42-2호 돌덧널무덤 전경  
아래 | 27-1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20-2,3호 돌덧널무덤 뚜껑돌 노출장면  
아래 | 2-1,2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22호 돌덧널무덤 전경



위 | 22호 돌덧널무덤 뚜껑돌 노출장면



위 | 5,6호 덧널무덤 전경  
아래 | 17,18,19호 덧널무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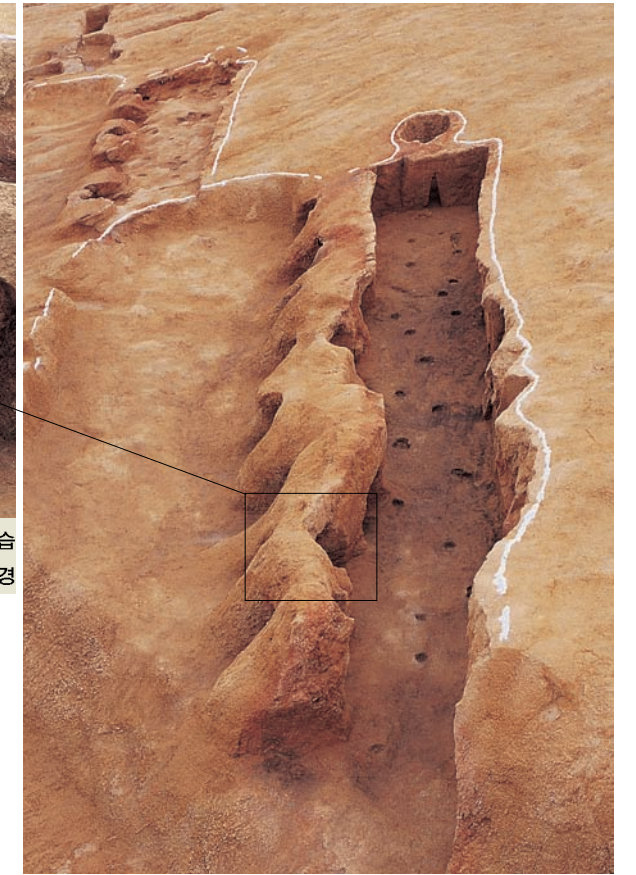
## 5. 달천유적

달천유적은 1998년 달천농공단지 조성부지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삼국시대의 탄요(炭窯)와 고려시대 기와가마터(瓦窯), 그리고 조선시대 민묘(民墓)들이 조사되었다. 이곳에서 주목되는 유구는 삼국시대의 탄요인데, 탄요는 제철에 필요한 백탄(白炭 : 높은 화력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연료)을 생산하기 위한 제철관련 시설로 알려져 있다. 인접한 달천광산은 원삼국시대부터 채광이 이루어진 노천광이었다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이 대단히 높다. 조사된 3기의 탄요중에서 2기의 상태는 대단히 양호하여 탄요를 만드는 과정까지 추정해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 기와가마터와 조선시대의 민묘 7기가 조사되었는데, 그 중 봉분과 함께 내부구조가 잘 남겨진 1호묘는 내부를 솟으로 채웠으며, 봉분도 비교적 잘 남아 있었다. 민묘에서는 자기류와 청동제 숟가락 등이 출토되었다.



위 | 화구부(火口部) 모습  
우측 | 나-1호 탄요 전경



가-1호 민묘전경



용도미상의 석조구조물

### 6. 연암동유적

연암동유적은 1998년 무릉고등학교 신축부지 조성과정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다. 모두 6동의 주거지가 조사되었고, 민무늬토기(無文土器)와 석기류들이 발굴되었다.

연암동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은 독특한 구조인데 주거지 외곽으로 배수구를 설치한 울산형주거지의 구조에 더하여 주거지 외곽에 타원형의 도랑을 둘러 특이한 모습이다. 이것은 아마도 울산형주거지가 평지에 만들어짐으로서 생겨난 울산형주거지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구릉상에 만들어진 울산형주거지의 배수구 기능을 평지에서도 이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연암동유적은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는데, 주변지역이 이미 개발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규모라든지 현황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동천강 주변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들이 간헐적으로 발굴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성과를 기대해 볼직 하다.



연암동유적 근경



위 | 2,3호 주거지 전경  
아래 | 4호 주거지 전경





위 | 2호 주거지 전경  
아래 | 3호 주거지 소토(燒土)노출장면



## 7. 화정동유적

화정동유적은 1999년(울산대박물관)과 2004년(울산문화재연구원) 2차례에 걸쳐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다. 모두 15동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논농사 흔적이 조사되었다.

발굴조사된 유적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구릉의 마주보는 사면에 형성되었는데, 규모가 큰 청동기시대의 취락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유적의 일부만 발굴되어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계곡과 가까운 곳에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논농사 흔적이 발굴되었다. 시기는 대개 기원전 5세기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출토유물 중에는 흙을 구워 만든 토제 어망추(漁網錘)가 많은데 이는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돌도끼(石斧), 돌화살촉(石鏃) 등 다양한 석기류와 민무늬토기(無文土器)가 발굴되었다.



위 | 2호 주거지 전경  
아래 | 2호 주거지 집석노출장면



아래 | 화정동유적 전경





월산리유적 전경

### 8. 월산리유적

월산리유적은 (주)덕성의 공장부지 시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삼국시대의 생활유적이 같이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완만한 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 1동의 대형 주거지가 있고 나머지 소형 주거지들이 동쪽 사면에 배치되어 있다. 주변지역에서 석기류를 포함한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가 채집되는 것으로 보아 일정 규모 이상의 취락이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유적은 굴립주건물지(掘立柱建物址) 1동과 2기의 수혈유구(竪穴遺構)가 조사되었는데, 수혈유구는 지상건물지의 부속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보다 낮게 만들어진 부속시설만 남고 상부 전체가 삭평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로 보아 6세기대의 생활유구로 판단된다.



위 | 1호 주거지 전경  
아래 | 2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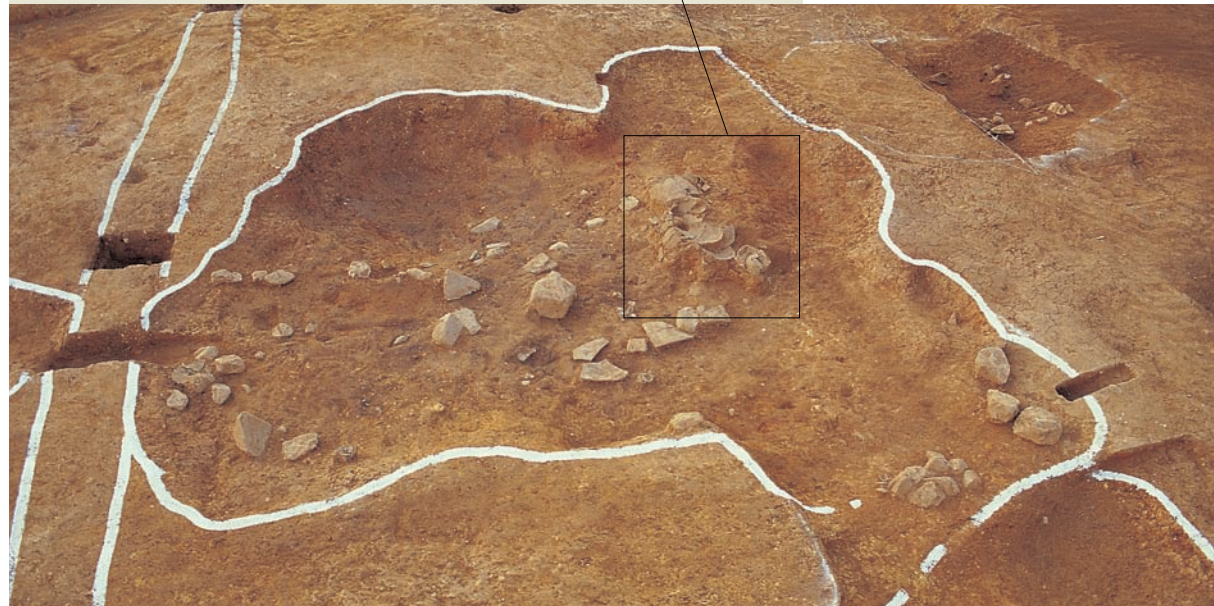


위 | 1호 굴립주건물지 전경



위 | 유물노출장면

아래 | 2호 수혈유구 전경



## 9. 서부동유적

서부동유적은 도로개설공사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인데 1999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가 도로부지에 국한되어 유적의 일부만이 조사되었는데 전체유적의 말단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형 주거지 4동이 조사되었고, 유적을 가로지르는 소규모의 도랑이 조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편들이 채집되었다.

출토유물은 돌도끼를 포함하여 돌촉 등의 석기류와 민무늬토기(無文土器)편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특히 유적을 가로지르는 도랑에서는 민무늬토기(無文土器)편이 다량으로 채집되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사대상지의 높은 곳에 유적의 중심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 2호 주거지 전경

아래 | 4호 주거지 전경



아래 | 서부동유적 전경





범어유적 전경

### 10. 범어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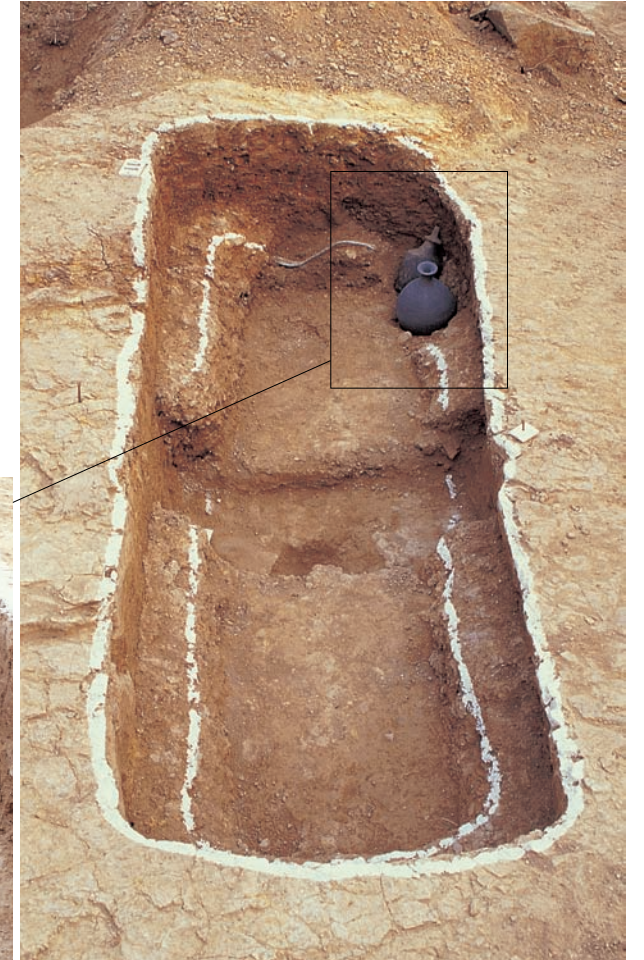
범어유적은 울산체육공원부지에서 확인된 고려시대의 무덤유적이다. 모두 33기의 고려시대 묘와 근대묘 1기가 조사되었는데 청자류와 고려시대 토기류, 그리고 청동제 부장품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에는 구름과 학(雲鶴紋)이 비교적 정교하게 시문된 것도 있고, 국화문(菊花紋)이 시문된 것도 있다. 그 외에 토기질의 정병(靜瓶)도 한 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제 유물은 숟가락과 젓가락,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그릇이 있으며, 머리장식을 위한 뒷꽂이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유구의 측면에 만들어진 감실(壁龕)이 확인되었는데, 이른 시기의 감실이 이와 같은 소형 무덤군에서 확인되는 것은 학술적으로 대단히 주목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위 | 유물노출장면



위 | 11호 묘 전경



위 | 13호 묘 전경





대안리유적 전경



2호 주거지 전경



위 | 1호 주거지 전경

위 | 벽구내 주철 모습

## 11. 대안리유적

대안리유적은 2000년 대안초등학교 조성과정에서 확인된 유적이다. 대안리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7동과 2세기경의 널무덤(木棺墓) 65기가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네모꼴 모양으로 한쪽 모퉁이에 배수구가 갖추어진 전형적인 울산형주거지의 모습이다. 안타까운 점은 유적지가 과수원으로 경작되면서 주거지의 원형이 대부분 극심하게 훼손되어 전체적인 현상파악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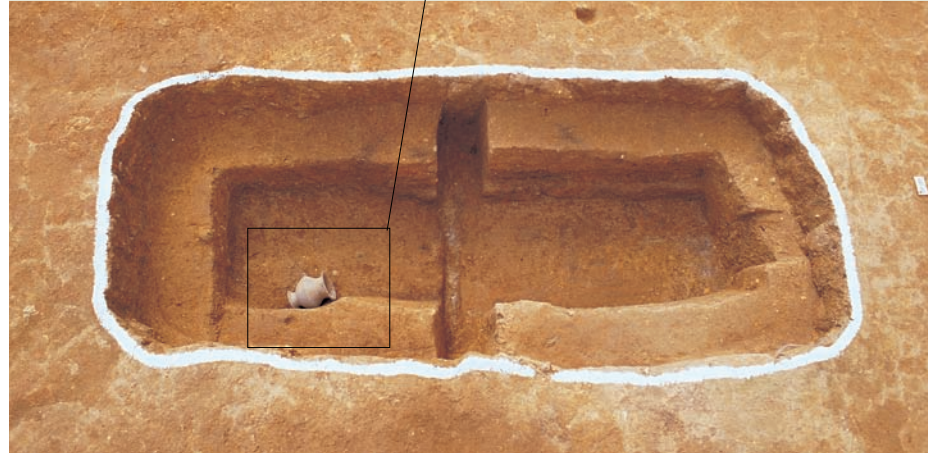
널무덤은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덧널무덤(木槨墓)이 등장하기 직전단계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우각형 파수부호(組合牛角形把手附壺)와 주머니호 등이 시기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출토유물은 고식와 질토기(古式瓦質土器)들로서 2세기 전엽경에 만들어진 것들로 덧널무덤이 등장하기 직전단계의 것들이다. 철기유물은 주로 철검과 철창, 화살촉 등으로 조사된 유구에 비하여 출토유물은 대단히 적은 편이다.



위 | 34호 널무덤 전경  
아래 | 유물노출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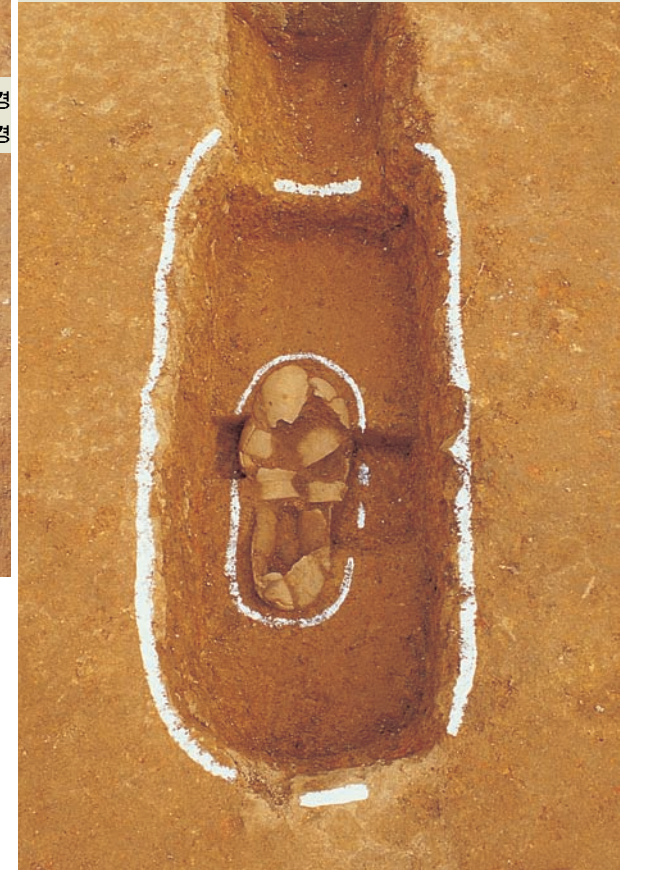
위 | 유물노출장면  
아래 | 18호 널무덤 전경



위 | 15호 널무덤 전경  
아래 | 3호 독무덤 전경



위 | 62호 널무덤 전경  
아래 | 9호 독무덤 전경





6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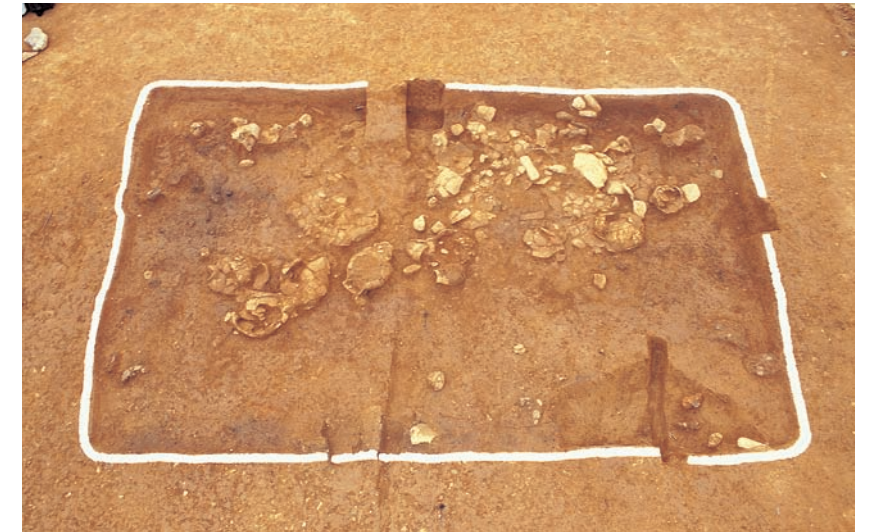
구수리 유적 원경

## 12. 구수리유적

구수리유적은 국도 24호선확포장구간에서 확인되어 2001년 발굴조사되었다. 도로에 포함되는 일부지역만 조사되어 유적의 전체적인 현상은 알 수 없다. 조사대상지는 태화강상류의 하천변이며, 조사된 주거지는 모두 6동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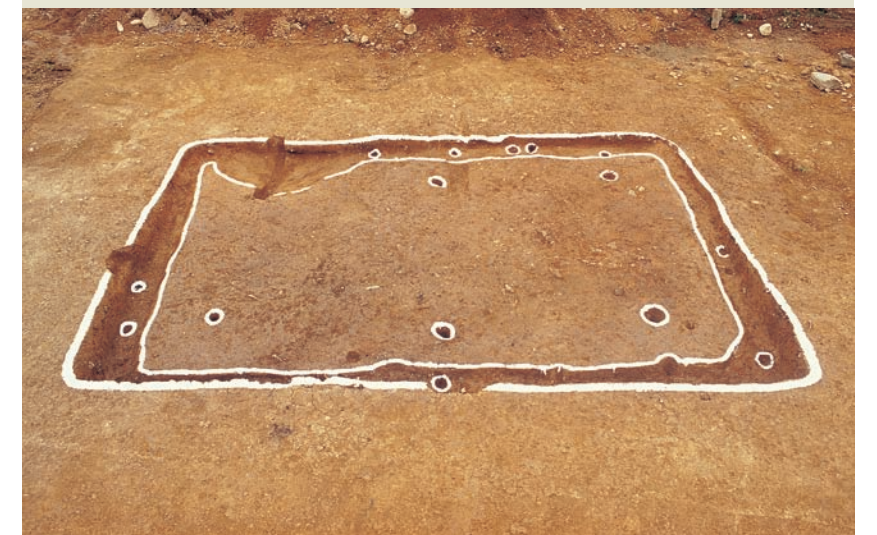
주목되는 유구는 2호주거지인데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가 주거지 내부에 파손된 채 검출되었다. 주거지 내부에 선반을 설치하고 토기를 보관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6호주거지는 장방형의 평면구조인데 외곽에는 타원형의 바깥도랑(外廓周溝)이 둘러져 있으며, 이는 연암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주목된다.

출토유물은 돌도끼(石斧)와 반달돌칼(半月形石刀), 그리고 많은 양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가 확인되었다.



위 | 2호 주거지 유물노출장면

아래 | 2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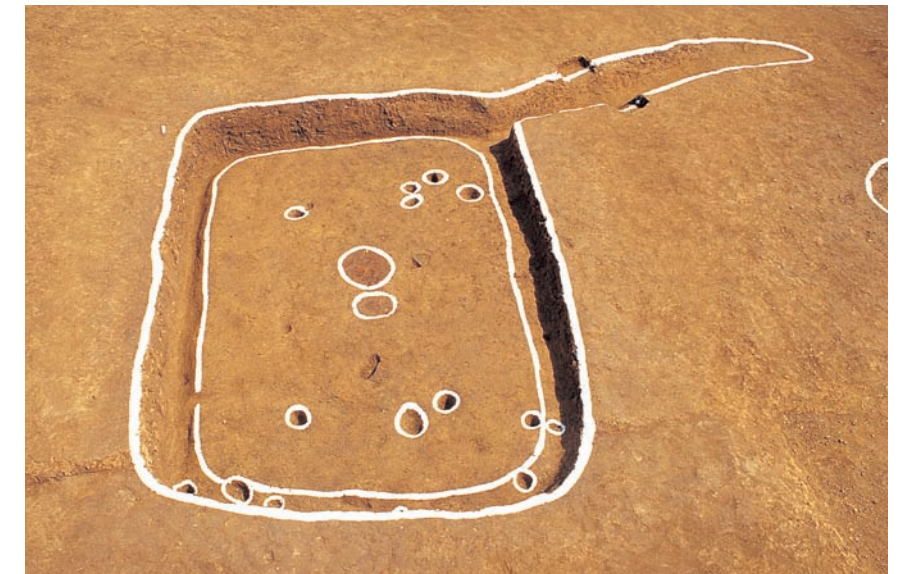
### 13. 천소유적

천소유적은 2003년에 (재)울산문화재연구원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12동을 비롯해서 삼국시대 덧널무덤(石槨墓) 3기,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뼈단지(骨壺), 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확인된 복합유적이다.

12동이 확인된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배수구가 갖추어진 울산형주거지로서, 출토유물은 민무늬토기(無文土器)와 돌로 만든 가락바퀴(紡錘車), 돌도끼(石斧)들이 있다.

삼국시대 덧널무덤은 6세기대의 것인데, 무덤은 소형으로 바닥에는 자갈을 한 벌 깔고 단벽쪽에 유물을 부장하였다. 출토된 유물은 굽다리긴목항아리(臺附長頸壺)와 굽다리접시(高杯) 등이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뼈단지는 인화문(印花文)이 시문된 토기로서 7세기대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천소유적은 태화강변의 교통로상에 위치한 지리적인 유리함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생활유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 2호 주거지 전경



아래 | 3호 주거지



천소유적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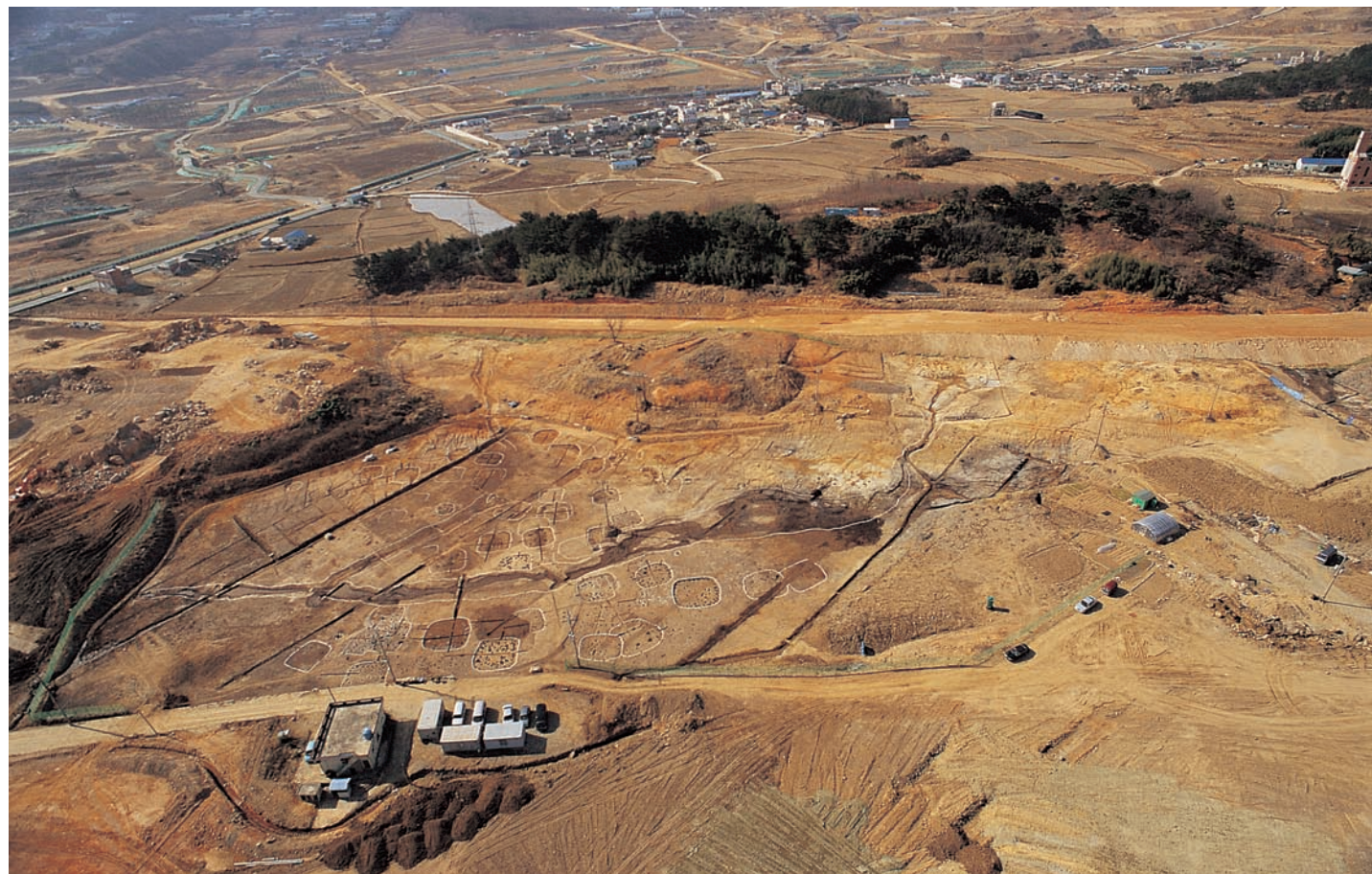
위 | 1호 돌덧널무덤 전경

## 14. 가동유적

가동유적은 부산정관신도시 조성부지에서 확인된 삼국시대의 무덤과 생활유적이다. 무덤유적은 일부만이 조사되었지만 생활유적은 마을전체가 발굴되어 삼국시대 마을의 전모를 알 수 있게 되었다. 모두 160동의 주거지와 86동의 굴립주건물지(堀立柱建物址) 등이 조사되었으며,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랑에서는 나무로 만든 생활도구들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가동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들은 진흙을 빚어서 만든 아궁이와 난방시설 등이 갖추어진 형태로 영남지방의 삼국시대 주거형태를 밝혀주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굴립주건물지는 당시의 곡물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인데 마을의 외곽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땅속에 묻힌 기둥의 흔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취사용 토기인 시루와 항아리들이 아궁이 근처에서 발굴되었으며, 그 외 솥돌, 흙으로 빚어 만든 구슬 등 다양한 유물이 조사되었다. 마을을 가로 지르는 도랑에서는 목제유물과 함께 복숭아씨, 박씨 등 삼국시대의 식물식물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동유적은 삼국시대 생활사를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하겠다.



가동유적 전경



위 | A-11호 돌방무덤 전경



위 | A-2호 돌방무덤 전경



아래 | A-1호 돌방무덤 전경



위 | B-3G-8호 주거지 전경



위 | B-3G-30호 주거지 바닥 모습



위 | B-3G-9,32호 주거지 전경



위 | B-4G-3호 주거지 바닥 모습



위 | B-2G-13호 주거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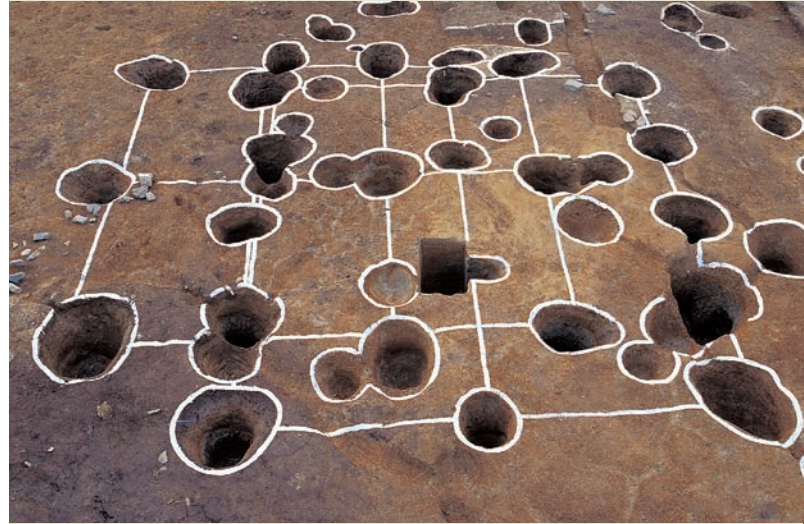
위 | B-2G-14호 주거지 바닥 모습



위 | 주혈내 기둥 모습



위 | C-5호 굴립주건물 전경



위 | C-24, 39호 굴립주건물 전경



위 | A-12호 굴립주건물 전경



위 | 불명목기 노출장면



위 | 목제신발, 바가지 노출장면



위 | 불명목기 노출장면

### 15. 방곡리유적

방곡리유적은 가동유적과 함께 2003년 정관신도시 조성과정에서 확인되어 발굴조사되었다. 구릉 전체에 걸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원삼국시대 널무덤(木棺墓), 옹관묘, 삼국시대 돌덧널무덤(石槨墓), 조선시대 민묘(民墓) 등이 발굴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16동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에는 길이 15m를 상회하는 대형주거지도 있었다. 청동기시대의 주거지는 구릉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원삼국시대의 널무덤(木棺墓)은 모두 11기가 조사되었는데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와 와질토기(瓦質土器), 그리고 판상철부(板狀鐵斧)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청동제의 검 손잡이(劍把)와 장식(劍把頭飾)이 확인되어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6호 독무덤 전경



가-13호 목관묘 전경



위 | 가-1호 널무덤 전경



| 가-4호 널무덤 전경



방곡리유적 전경



위 | 검파와 검파두식 노출장면



위 | 가-1호 무덤 전경





위 | 유물노출장면

아래 | 나-1호 돌방무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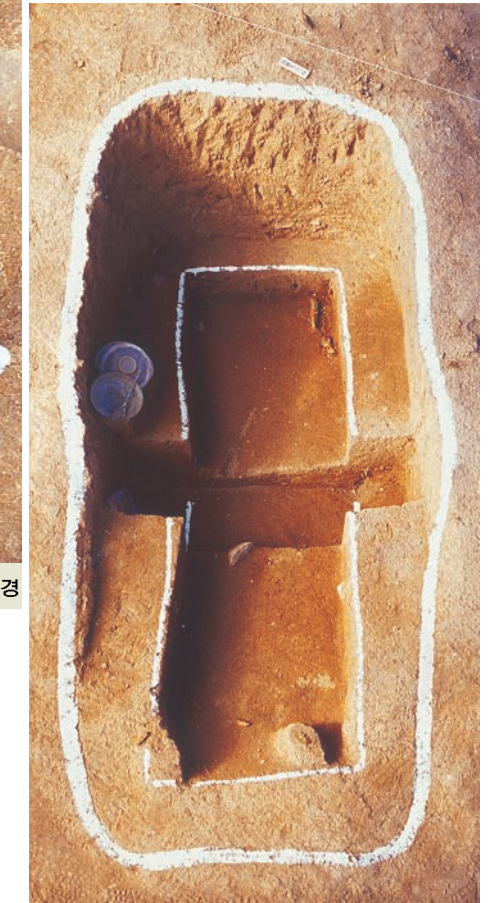
위 | 나-7호 묘막지 전경



위 | 나-21호 묘 전경



위 | 가-135호 묘 전경



위 | 가-143호 묘 전경

총괄 : 김두현

기획 : 김영민, 신준섭

원고 : 김영민

교열 : 김두현

사진 : 함춘원

색분해 : 김경덕, 김덕현

디자인 : 용디자인 (김덕현, 김용희외)

발행인 : 울산대학교 박물관

## 遺蹟과 遺物 (울산대학교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

인쇄 2006년 2월 26일

발행 2006년 2월 28일

편저 **울산대학교 박물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신29번지  
TEL: (052)259-2635, FAX: (052)259-2632

제작 도서출판 **용디자인**

614-040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367-91 1층  
TEL: (051)805-6416, FAX: (051)805-6415

---